

# [오미아트] 회사소개서



We draw stories and daily lives.  
We create a variety of thoughts and identities.  
With chalk art and books



# 먹거리에 예술을 더하다!

## 오미아트는

'오미(다섯가지 맛)' 와 '아트(예술)'의 합성어로 '분필 하나로 담는 맛있는 예술'을 주 컨셉으로 하는 [아날로그 아트&디자인 연구소]입니다.  
맛있는 그림을 그려 카페&레스토랑의 메뉴판, 입간판 등의 소품을 수작업 하여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디자인물에 그려진 맛있는 그림은 '오미아트북스' 출판사를 통해 그림책으로도 출간되어 아날로그적 가치를 극대화 시키고 있지요.

## 오미아트는

손그림과 손글씨로 아날로그적 감성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특별한 날에는 예쁜 카드를 구매해서 정성껏 손글씨를 쓰고 그 옆에 손그림을 곁들이면서 감사의 뜻을 전했었죠.  
지금은 클릭 하나로 여러명에게 안부를 물을 순 있지만 과거에 느꼈던 인간적인 따뜻함은 느끼기 힘들어졌습니다.  
카페나 음식점에서도 마찬가지로요. 예전에는 뽀뽀 손글씨와 손그림으로 만들어진 메뉴판이 참 정감가고 따뜻하게 느껴졌는데  
요즘에는 디지털로 만들어진 메뉴판이나 디자인물로 쉽게 쉽게 주문을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차운듯한 느낌.  
세상살기는 편해졌지만 외로움과 헛헛함은 커진 요즘 세대에서 오미아트에서는 조금이나마 인간적인 따스함을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 ADD ART TO FOOD!

오미아트 (주) [www.ohmiart.com](http://www.ohmiart.com)    [www.Instagram.com/ohmi\\_art](http://www.Instagram.com/ohmi_art)

# Current **business**

“먹거리에 예술을 더하기 위해  
아날로그 아트웍(ART WORK)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① Art work

- 작품 제작
- 그림책 출판

## ② 교육

- Food illust 클래스
- 기업체 강좌

# 하나, 레스토랑 & 카페를 위한 메뉴판, 입간판, 인테리어 액자를 그림책 작가가 직접 손으로 그려 맞춤제작 합니다.



따뜻함이 느껴지시나요?

'오미아트'에서는 주로 블랙보드위에 분필과 유사한 필력을 지니되 가루날림이 적은 오일파스텔로 작업을 합니다. 블랙보드와 오일파스텔의 만나면서 발색이 더욱 풍성해지기 때문이지요. 사진으로는 색감을 100% 담을 수 없어서 너무나 아쉽지만, 실제로 오일파스텔화를 보시는 분들은 모두 매력에 빠져버린답니다:)

그래서, 오미아트에서는 잘 그린 그림, 예쁜 그림 보다 빨리 빨리 그려서 작업물을 뽑아내기 보다는 조금은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인간적인 느낌의 따뜻한 그림을 목표로 작업 합니다. 게다가 그림책 작가가 작업 하기 때문에 화려하진 않아도 개성있는 그림체를 만들어 드립니다.

# 두울, 카페&레스토랑과 협업하여 스토리 그림책 출간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외식업을 운영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대박 맛집, 성공한 외식업 사장님들의 비법을 비롯해 먹방 프로그램, 요리 채널 등 각종 먹거리에 대한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의 먹거리에만 집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공의 기준이 어디인진 모르겠지만, 아직 성공의 궤도에 오르지 않았더라도, 대박집이 아니더라도 먹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만의 매장을 운영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저희는 그런 분들을 그림책에 담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 꼭 성공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이 콜라보 그림책이 널리 퍼지면서 아직 성공하진 못했더라도, 큰 이슈가 되지 않더라도, 묵묵히 자신이 좋아하는 먹거리를 만들고 계신 많은 외식업 종사자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오일파스텔로 그린 따뜻한 일러스트를 더해 그 열정적인 스토리를 좀 더 발랄하게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 세엣, 그림을 그리지 못해도 충분히 예술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림 작가 데뷔를 도와드립니다.



오미아트에서는 분필 하나만으로 누구나 일상을 예술로 만들며 지낼 수 있는지에 대한 코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필하나'는 재료와 실력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보셔도 됩니다.

무언가 시작하기 위해서 완벽해야 할 것 같고, 더 잘 그려야 할 것 같고, 비싼 재료를 준비해야 할 것 같고 이러한 착각에 갇혀 있었는데요.

그런데 완벽해야 겠다는 생각이 커질 수록 취미 이상으로 발전시키기 참 힘들지요.

그 착각을 내려놓는 순간 오히려 하나하나 알아가는 재미도 있고, 자신감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오미아트 대표이자 작가인 오미작가도 그 착각을 내려놓는데 4년의 시간이 걸렸는데요.

4년 동안 작가오미가 깨달게 된 노하우와 경험들을 1:1로 알려드리는 과정이에요.











현재 작업 중입니다.





# Portfolio 바로가기

홈페이지 및 인스타그램에서 더 많은 포트폴리오 확인 가능합니다.

Homepage [www.ohmiart.com](http://www.ohmiart.com)

Insta [https://www.instagram.com/ohmi\\_art/](https://www.instagram.com/ohmi_art/)

blog <http://blog.naver.com/omjism>

# 외식 전문 아트디렉팅 Special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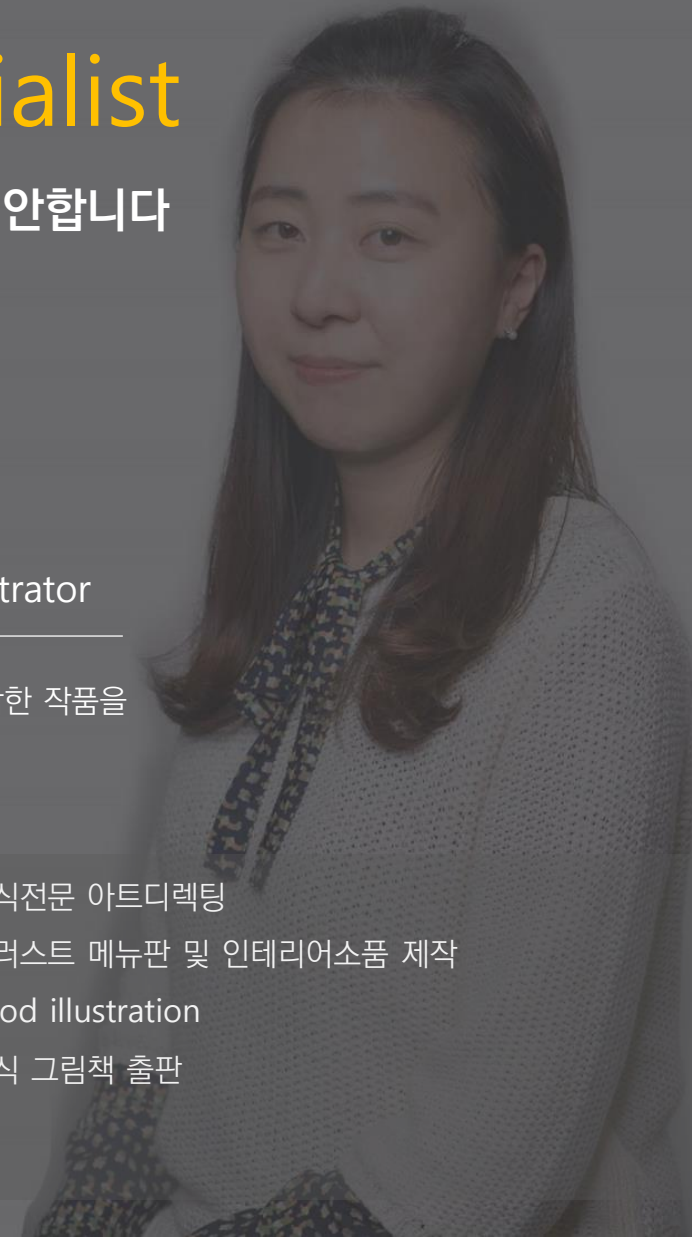
외식업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진정성 있는 아트디렉팅을 제안합니다

**오미** 외식전문 아트디렉터 / food illustrator

실제 경험했던 외식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가장 적합한 작품을 제안합니다.

**이력**    現 외식전문 아날로그 디자인 회사 (주)오미아트 대표  
前 외식전문 기업 브랜드 매니저 근무  
경희대학교 호텔경영학/경영학 전공  
저서 [단돈 10만원으로 만드는 초크아트 메뉴판] 외 다수

**전문분야**    외식전문 아트디렉팅  
일러스트 메뉴판 및 인테리어소품 제작  
Food illustration  
음식 그림책 출판



# Business practice **career**

외식전문기업 (주)아모제 에서 8년 동안  
본사 및 다양한 사이트에서 **브랜드 매니저**로 실무경력을 쌓았습니다.

\* 브랜드 매니저? 특정 상표에 대해, 마케팅 계획과 광고 전략의 전 책임을 진 사람.



오션월드 F&B



잠실야구장 F&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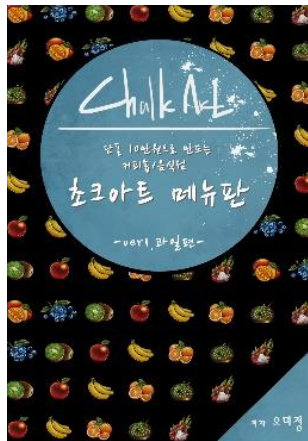
원마운트 F&B



롯데백화점 F&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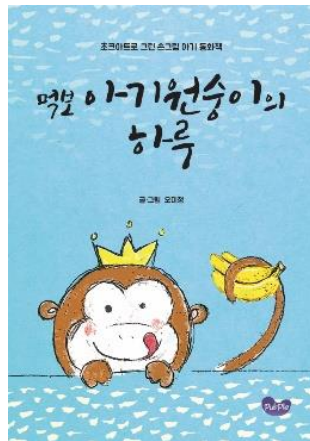
# Food illust books

오미아트 에서 작업하는 모든 디자인물은  
그림책 작가인 오미가 직접 그림을 그립니다.  
예쁘기만 한 그림보다는 스토리가 있는 그림을 추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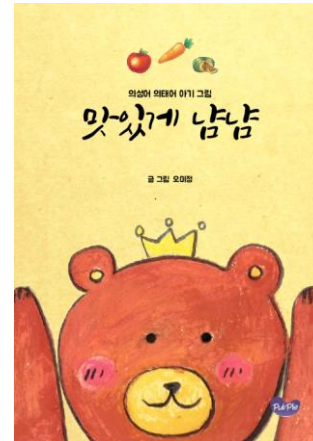
2016  
단돈 10만원으로 만드는  
커피숍/음식점  
초코아트 메뉴판

카페와 레스토랑에서 직접  
메뉴판을 만들 수 있도록  
재료부터 일러스트까지  
저자의 노하우를 담은  
실용서



2016  
초코아트로 그린 아기 동화책  
먹보 아기원숭이의 하루

먹을 것을 좋아하는 아기 원숭  
이가 하루를 보내며 벌어지는  
재미있는 일상들을 초코아트  
일러스트로 표현한 감성 동화  
책



2017  
의성어 의태어 아기 그림책  
맛있게 남남

음식과 관련된 의성어와 의태  
어를 초코아트로 표현 해서 음  
식에 대해 아이들이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그린 감성 그  
림 책



이제 갓 엄마가 된  
어떤 여자 이야기

작가의 실제 이야기인 출산 후  
느끼게 된 일상의 소소한 행복  
을 아기자기한 일러스트로 표  
현한 감성에세이 그림책



# CONTACT

C.P. 010.5413.9161

Mail [omjism@naver.com](mailto:omjism@naver.com)

작지만 강한 그리고 아름다운 **오미아트**

오미아트만의 방향으로 외식업과의 아트웍 콜라보레이션으로  
외식업 활성화를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